

무주군, 후지사과 신선도 유지한다

신선도 유지제(1-MCP)지원 사업 11월부터 본격 추진

무주 후지 사과와 품질유지와 저장성 향상을 위해 후지사과 신선도 유지제(1-MCP)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우수한 무주 후지사과를 저장, 신선도 유지와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후지 사과를 판매하기 위해서다.

신선도 유지제(1-MCP)는 지난 2002년도 미국 환경청(EPA)에 등록·실용화된 물질로 인체에 무해하며 과일에도 잔류성분이 남지 않는 안전한 친환경 신선도 유지에 큰 효과를 거둔다.

군은 올해 사업비 1억4천만 원(군비

7천만 원 포함)을 확보하고 오는 11월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본격 지원에 나선다. 신선도 유지제가 처리된 사과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저장 및 판매가 가능하다.

앞서 군은 과실저장용 저온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농가 및 생산자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대상자를 선정하고 유지제 지원을 앞두고 있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무주 후지 사과의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신선도 유지제(1-MCP) 사업 지원으로 내년 여름까지 신선한 무주 후지사과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과 장기 저장에 의한 과실을 연중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사과 출하기 조절에 의한 홍수 출하 방지로 과실가격 하락 방지가 기대되면서 농가소득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김현수 팀장은 “무주 명품사과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선도를 유지해 맛과 품질이 좋은 후지사과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선도 유지제 사업을 진행한다”며 “농가소득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저온저장고에 신선도 유지제(1-MCP)를 투입하면 사과의 숙성과 조식의 노화를 방지하는 등 상품성과 저장성을 유지시키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의암주논개 탄신 제447주년 기념 제례봉행

제례봉행·논개 추대식만 거행

장수군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는 지난 8일 논개사당 영정각에서 의암주논개 탄신 제447주년 기념 제례봉행을 거행한 후 군민회관으로 이동해 논개 추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제례는 장영수 군수가 초헌관을, 김용문 군의회 의장이 아헌관, 신봉수 선양회장이 종헌관을 맡아 봉행 헌작했다.

선양회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기념식, 축하공연 등 매년 개최하던 축제 행사를 취소하고 제례봉행과 논개 추대식만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장수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의암주논개의 애국충절 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음력 9월 3일 주논개 탄신일을



장수군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는 지난 8일 논개사당 영정각에서 의암주논개 탄신 제447주년 기념 제례봉행을 거행한 후 군민회관으로 이동해 논개 추대식을 진행했다.

기념해 제례봉행을 진행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의암 주논개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후손들에게 그 정신

장수군,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장수군이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농촌 현장 및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보다 예방접종률이 낮고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 및 거주하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진단검사가

필요하다.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합숙하고 있는 업체 등에 대해 방역관리 준수 및 유증상자 적극 검사 유도 및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비자 확인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외국인은 신분상 불

이익을 받지 않는다.

장수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선제검사, 방역물품 배부, 예방접종을 제고를 위한 전과 독려 등 지속적인 홍보안배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장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및 이상증세 발생 시 먼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민 정신건강증진 총력

정신건강의 날 맞아 타시군 의료기관과 협력 체결

무주군이 군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행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 일환으로 타시군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체결하는 등 군민 정신건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 날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제정했다.

군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군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 최적의 시기에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금산제일정신건강의학과·영동신경정신과·영동조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일환으로 서면으로 진행했다.

또한 군은 무주읍에 위치한 휴먼시아아파트에 이동상담실을 설치하고 군민의 정신건강 인식 수준을 높이고, 조기에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홍찬표 보건의료원장은 “정신건강은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무주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의 업무협약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위험군 발굴과 치료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공유누리’ 서비스 홍보 만전

무주군이 ‘공유누리’ 홍보에 나섰다. ‘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주차장, 문화숙박, 회의실, 강의실·강당, 체육시설 등)과 서비스(물품, 연구·실험장비 교육·강좌 등) 등의 공공개방자원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로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인터넷에 접속해 정부 공유누리서비스 포털(www.eshare.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무주군은 물론 전국의 공공

시설 등을 손쉽게 예약 및 이용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물품 등도 해당 서비스를 통해 대여가 가능하다.

무주군은 군민들의 ‘공유누리’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는 물론,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장회의, 기관 사회단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법무규제팀 임인숙 팀장은 “PC나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공유지도, 공유자원, 통합검색, 개인맞춤, 활용안내, 챗봇 서비스 등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제1회 주거복지대상 우수기관 선정

진안군은 국토부가 주관한 ‘제1회 주거복지대상’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특화사례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민관협력 시스템 등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기관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평가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성과를 1차(서면)·2차(발표)에 걸쳐 심사한 것으로, 심사결과 10대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다.

군은 급속한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해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주민들의 정주욕구 고취를 위하여 지난 1년간 ▲청년마을 및

주거안전환경 조성 ▲청년주거비용 지원 ▲주민센터 조성 ▲아름다운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 등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마을 조성을 기획하여 도비보조금 10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방범문,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춘성 군수는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게 돼 기쁘다”며 “이번 성과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을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주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진안군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지난 8일 시장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연장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군 관계자 10명이 참여하여 군민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과 각종 안전수칙 등을 안내했다.

캠페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씻기 준수 ▲마스크 착용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코로나 19 방역수칙, 안전신문고 홍보물 배부를 같이 진행했다.

문병인 안전재난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0월 17일까지 연장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달 29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정옥주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민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11월에 개최하는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정옥주 행감특위 위원장은 “의회가 가진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 전반에 대하여 꼼꼼하게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규 행감특위 부위원장은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